

전북현대, 중국 장쑤에 2-3 석패

이동국 · 김신욱 한글씩 조별리그성적 1승1패 FC서울 히로시마 대파

FC서울이 3·1절에 열린 J리그 '디펜딩 챔피언'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미니 합일전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뽐내며 완승을 거뒀다.

서울은 1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히로시마를 4-1로 대파했다.

지난달 23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의 원정경기에서 6-0으로 승리한 서울은 2연승(승점 6)으로 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아드리아노는 역전골과 썩기골을 연거푸 뽑아내는 등 헤트트리로 3·1절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부리람전(4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헤트트리아이다. 7골로 챔피언스리그 득점 1위다.

서울은 부리람전과 마찬가지로 데안과 아드리아노를 최전방에 둔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오스마르와 김원석, 김동우가 스리백을 형성했고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유현이 골문을 지켰다.

서울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공을 돌리며 히로시마의 전력을 탐색했다. 히로시마는 반칙을 적절히 섞어가며 서울의 흐름을 끊었다.

선제골은 히로시마가 가져갔다. 전반 25분 고혜이 시미즈의 프리킥을 가즈히로 치바가 헤딩슛으로 마무리했다. 조직적인 수비로 기회를 봉쇄하던 서울은 의외의 한 방에 리드를 내줬다.

일격을 당한 서울은 전반 32분 균형을 맞췄다.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김원석이 혼전 중 공이 뒤로 흐르자 침착한 왼발 땅볼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북현대는 중국 난징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장쑤 쉬닝과의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3으로 석패해 선수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아드리아노는 후반 4분 만에 신진호의 프리킥을 오른발로 차넣었다. 공이 머리 위에서 넘어와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드리아노의 감각이 돋보였다.

썩기골도 아드리아노의 몫이었다. 고희민이 데안과의 2대1 패스로 왼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가운데로 찰러주자 달려들던 아드리아노가 발을 갖다대 득점에 성공했다.

네 번째 골은 한 편의 작품과 같았다. 오스마르에서 출발한 공은 왼쪽 측면의 데안과 다시 오스마르를 거쳐 신진호에게 전해졌다.

히로시마는 2연패에 빠졌다. 2010년 상동 루닝(중국)전 3-2 승리 이후 원정 8경기에서 연속 무승의 불명에도 계속됐다. 전북 현대는 이날 오후 9시 중국 난징의 올림픽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장쑤 쉬닝

과의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3으로 졌다.

전북은 지난달 23일 안방에서 열린 FC도쿄와의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중국 원정에서 치러진 2차전은 쉽지 않았다. 조별리그 성적은 1승1패(승점 3)다. 승리하지는 못했으나 이동국·김신욱 투톱이 번갈아 골문을 본 것이 위안이다. 올 시즌부터 호흡을 맞추게 된 이동국과 김신욱은 높은 결정력으로 향후 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전북은 김신욱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고무열, 이종호를 측면 공격수로 기용했다. 김보경과 이재성, 최철순이 허리진을 꾸렸다.

장쑤는 전반 16분 테세이라가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강력한 슛은 아니었으나 코스가 워낙

좋았다. 리드를 내준 전북은 공격에 힘을 싣고 동점골 사냥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장쑤의 골문을 두드렸음에도 골이 터지지 않자 후반 초반 이동국과 레오나르도를 투입했다. 이동국은 후반 16분 코너킥 상황에서 전매특허 발리킥으로 동점골을 쏘아올리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전북은 후반 21분과 24분 연달아 실점했다. 순식간에 두 점차 리드를 허용해 패색이 짙어졌다.

포기는 하지 않았다. 전북은 후반 41분 다시 한 번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해 추격을 알렸다. 큰 키를 이용한 김신욱의 헤딩이 위력을 보였다.

후반 추가시간 이동국이 헤미레스의 퇴장을 유도해 수적 우위를 잡았다. 하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김민근기자

정몽규 축구협회장 리우올림픽 선수단장 내정



정몽규(54) (사진) 대한축구협회회장이 오는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6리우 데자케이루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일 "대한체육회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체육회에 긍정적인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체육회의 선수단장 요청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이 없는 한 정몽규 회장이 선수단장을 맡아 리우올림픽 선수단을 이끌게 유력한 상황이다.

2011년 프로축구연맹 총재, 2013년 대한축구협회를 맡아 스포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과거 프로축구 울산현대, 부산아이파크 등에서 단장을 지내 스포츠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 또 축구협회장으로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의 국제적인 감각과 이해도가 높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는 당시 대한유도회장이었던 김정현 현 대한체육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2012런던올림픽에서는 이기흥 대한수영경기연맹 회장이 했다.

/김민근기자

한국배구연맹, 8일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 개최

올 시즌 배구에 나서서 구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출사표를 던진다.

한국배구연맹(총재 구자준)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 베르사유홀에서 NH농협 2015~2016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의 감독과 대표선수가 참석해 우승을 위한 각오 등을 전할 계획이다. SNS를 통해 팬들의 질문을 사전에 접수해 감독과 선수들에게 물어보는 Q&A 시간도 있다.

올 시즌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 삼성화재가 포스트시즌 참가를 확정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이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여자부에서는 BK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이 볼 배구 참가를 확정했다. 나머지 한 자리는 흥국생명이 유력한 가운데 GS칼텍스도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미디어데이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민근기자

추신수 · 박병호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 오늘 시범경기 출격

추신수(34·텍사스)와 박병호(30·미네소타)를 비롯한 '코리안 메이저리거' 4명이 같은 날 시범경기에 출전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2일(한국시간) "추신수가 3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개막전에서 우익수 겸 2번타자로 선발 출장한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사용했던 상위 타선 라인업을 그대로 예고했다. 6~9번 타순에 변화가 있을 뿐이다.

달리아노 드릴즈(중견수)·추신수(우익수)·프린스 필더(지명타자)·에드ريان 벨트레(3루수)·미치 모어랜드(1루수)·저스틴 루지아노(좌익수)·엘비스 안드루스(유격수)·루그네트 오도어(2루수)·로빈슨 차리노스(포수) 순이다.

지난 시즌 추신수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진했다. 제프 배니스터 감독의 부인 후 전 체적적인 타격 라인업이 시험대에 올랐고 추신수 역시 2, 3번을 오가다가 하위타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추신수는 후반이 들어 2번 타순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면서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박병호 역시 같은날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6번 지명타자로 예고했다. 미네소타는 첫 경기 선발에 조 마우어와 트레버 플루프 등 베테랑급 주전들을 제외했다. 다만 주전이 확실시 되지만 적응이 필요한 미겔 사노와 박병호 등을 라인업에 올렸다. 미네소타의 타순은 브라이언 벅스텐(중견수)·에두아르도 누네즈(3루수)·케니스 바르가스(1루수)·미겔 사노(우익수)·박병호(지명타자)·호르헤 폴랑코(2루수)·론 라

이언 머피(포수)·윌프레도 토바(유격수) 순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오승환(3·세인트루이스)도 첫 실전에 나선다.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타석이 필요한 김현수(28·볼티모어)도 나온다. 2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첫 시범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그는 다시 애틀랜타를 상대로 첫 안타를 노린다.

추신수가 속한 텍사스의 경기는 오전 5시에 열린다. 나머지 경기는 모두 오전 3시경 시작된다. /김민근기자

대한축구협회(FA)컵 1라운드 28개팀 출전

2016 KEB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의 1라운드 대전 추첨이 오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진행됐다.

12일과 13일 열리는 1라운드에는 모두 28개팀이 출전한다. 지난해 성적을 기준으로 K리그 하위 8개팀, 대학 상위 10개팀이 출전한다.

올해도 양산 넥센타이어를 중심으로 청주 SMC엔지니어링, 울산 세종축구단, 목포 기동병원, 이천 SK하이닉스, 광명 IG 전자, 광주 삼성전자, 대우바이오, 후지제록스, 제주시청 등이 엘리트 축구에 도전장을 던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26년까지 1~6부 리그 승강제를 적용한 다비전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이번 FA컵에 참가하는 10개팀은 향후 다비전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K리그 클래식 팀들은 4라운드(32강)부터 합류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경기장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민족의 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실로 1482 / 063) 320-0114